

시민과 함께한 ‘공존의 예술’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서 그래피티·공공미술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진행·전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지난 5월 한 달간 팔복예술공장 야외놀이터에서 진행한 그래피티 및 공공미술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뮤지엄X즐거다’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 공공예술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이어진 체험에서는 그래피티 작가 3인과 지역 주민, 관광객 등이 함께 예술 놀이를 즐기며 벽화 제작에 참여했다. 특히 그래피티를 처음 접하는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현장에 즉석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프레이 페인팅을 가족과 함께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전시가 열리는 팔복예술공장은 기존 산업시설을 재생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이번 전시는 그래피티라는 도시 예술과 재생 공간이 만나 산업과 예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야외놀이터 및 외부 벽면에 조성된 그래피티 작품 〈공존(Coexistence)〉은 전통과 현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제로 작가 GR1(지일원), SEACH(시치), SPV(스피브)가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를 이룬 벽화로

완성됐다.

한편 이번 전시는 등록 사립미술관인 교통미술관과의 협력으로 공동 기획,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옥마을을 잇는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예술을 체험하고 즐기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미래문화콘텐츠팀(063-212-8801)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풍남문서 만나는 ‘전주씨네투어X산책’

7월 5일까지 매주 금·토 오후 8시 무료 야외 상영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전주씨네투어X산책’을 개최하며 영화제의 여운을 지속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6월 13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 풍남문에서 야외 상영이 시작된다.

이번 상영작은 총 32편의 한국독립단편영화로 구성됐다. 상영작들은 전체 관람가와 12세 이상 관람가로만 이뤄져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무료로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평소 흔하게 볼 수

없는 우수한 한국독립단편영화들을 대중에게 널리 소개하기 위해 ‘한국단편영화배급사네트워크’와 협업해 진행해 오고 있다.

총 8회의 상영 중 6회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하고 다채로운 단편선으로 구성, 7월 4~5일에 상영되는 작품은 제1~2회 한국단편영화상 수상작으로 그 해를 빛낸 보석 같은 단편영화를 풍남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상영작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립무용단·익산시립풍물단 합동 공연 펼쳐진다

19일 익산예술의전당서 개최

익산시립예술단이 전통과 현대, 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익산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에 ‘넥스트 모션(NEXT MOTION) 단원창작 프로젝트’가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익산시립무용단(예술감독 최석열)과 익산시립풍물단(예술감독 김익주)이 참여하는 합동 정기공연이다. 2019년 시작해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신선한 감각과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여 왔으며, 이달 5번째 공연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올해 공연 역시 무용단과 풍물단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작품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익산시립풍물단의 ‘유훈(流風): 시간의 흐름’(타악구성 신지용)은 인류 최초의 타악기인 북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을 독창적으로 표현한다.

아울러 창작 국악인 ‘PAN’(타악구성 김현주)은 호남우도 농악을 기반으로, 전통적 장단과 진풀이를 중심에 두고 사물관구의 역동적인 구성미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다.

익산시립무용단의 ‘뭇다한 이야기’(연출·안무 최수진, 고경보)는 1950년대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다.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참신한 시선으로 전달한다.

이번 공연은 넥스트 모션(NEXT MOTION)이라는 주제처럼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움직임과 음악을 통해 한국무용과 풍물의 경계를 확장한다.

특히 지역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시선이 더해져 전통 예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구하고, 익산의 예술적 자력을 재조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티켓은 전석 무료이고, 공연은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전화(063-859-3306)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넥스트 모션 단원창작 프로젝트 포스터

국립민속국악원, 창극 ‘독잡이댁 수레노래’ 27~29일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은 2025년 대표창극 ‘독잡이댁 수레노래’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예원당 무대에서 선보인다.

독잡이댁 수레노래는 전쟁과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대를 배경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지리산 골짜기를 따라 유랑하는 여성 ‘독잡이댁’과 딸 ‘화선이’의 여정을 통해 화해와 용서, 회복의 메시지로 전하는 창작 창극이다.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배상식 교수가 대본을 맡고,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한승식 교수가 음악감독을, 무대와 인물 간의 감정선을 세밀하게 그려내는 김 정 연출이 함께 작품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작품은 전쟁으로 갈라진 지리산의 골짜기마다 흩어져 살아가는 여덟 아들과, 그 사이를 누비는 독잡이댁과 딸 화선의 여정을 따라간다. 이야기 속에는 도깨비나 정령같은 신화적 존재들이 등장해 상상력을 자극하며,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모성과 화해, 생명의 존엄을 역동적으로 그려낸다.

국립민속국악원 김종현 원장은 “독잡이댁 수



레노래는 남원과 지리산이라는 공간에서 태어난 창극으로, 전통공연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무대”라고 전했다.

주요 배역으로는 방수미(독잡이댁), 서진희(화선이), 김은석(거식아), 고준석(이매), 최광균(망랑)이 출연한다.

공연은 6월 27일 오후 7시, 28일·29일 오후 3시, 총 3회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20-232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클래식 공연 ‘사랑의 묘약’ 성황리 개최

장수군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한 클래식 공연 ‘사랑의 묘약’이 지난 11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2025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수한누리전당의 상주단체인 재단법인 ‘예술담은나라’가 기획한 창작 초연 시리즈의 주요 무대 중 하나로 마련됐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작사라하는 여인 아



디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엉뚱한 약장수에게

속아 ‘사랑의 묘약’을 사게 되는 청년 네모리노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슬림 오페라 형식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지휘자 이매 정당의 지휘 아래 제1막과 제2막으로 나뉘어 공연됐으며, 네모리노, 아디나, 벨코레, 돌카마라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풍성한 클래식 선율과 함께 생생하게 그려졌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국제 콩쿠르 수상자 10명을 비롯해 국내 주요 예술대학 교수진과 전문 예술가들이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즐거운 국악 산책’ 하반기 참가 학교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문화 소외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5 즐거운 국악 산책’ 하반기 참가 학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즐거운 국악 산책은 도서·벽지 등 문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국악 감상, 공연 관람, 문화탐방 등을 통해 전통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이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5개 학교(5,130명)가 참여했다.

올해 하반기는 9월 25일, 10월 16일, 10월 23

일 총 3회 운영되며, 회차별 최대 40명(인솔교사 포함)까지 참여할 수 있고, 참가 대상은 전국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로 참가 학생의 숙박비와 식비는 무료로 지원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광한루원 음악회 관람 △국악 감상(강강술래, 판소리 배우기) △국악전시실 관람 △춘향테마파크, 남원 수화 체험센터,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등 교육 문화시설 탐방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063-620-232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